

'김대중 정신'으로 신냉전·기후위기 문제 해결책 모색

탄생 100년 맞아 목포서 '평화·생명의 길' 주제로 평화 페스티벌

전남도가 5일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 홀에서 세계 민주·평화·인권의 '김대중 정신'을 통해 신냉전·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개막했다.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은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전남도·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사)김대중평화센터 등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김영록 지사의 개회사, 이광일 부의장과 김대중 교육감의 환영사, 권노갑 이사장과 우승희 영암군수의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축하 영상메시지, 기조 강연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열린 평화 페스티벌에서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 기조 강연을 했다. 김성재 상임이사는 "신냉전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는 김

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코스모 민주주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넷 잡슨 남아공 투투재단 최고경영자(CEO)는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화해와 평화: 한국에 대한 함의' 기조강연을 했다. 분열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남아공 투투 대주교와 김대중 대통령, 두 지도자의 정신이 오늘날 평화와 민주주의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재조명했다.

또 올리버 리치몬드 맨체스터대 교수의 '미국-중국-러시아의 대결과 세계평화의 길', 김명자 카이스트 교수의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6일에는 차상균 서울대 교수의 'AI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 주한 동티모르·독일 대사 '역사적 유대, 김대중과 동티모르', '김대중, 독일인 시각으로 본 그의 유산' 주제강연이 예정됐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 행사가 5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고,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해 헌신했다"며 "전 지구적 위기 앞에 다시금 중요한 이정표로 주목받는 '김대중 정신'이 널리 기억되고 길이 이어지

도록 전남도가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앞으로의 100년도 신냉전,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를 '김대중 정신'으로 극복

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세상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하기관들 자료 누락·부실...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임원·단장·본부장 급여 합산액 불일치...매출 현황 축소해 보고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 산하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자료 누락으로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광주테크노파크의 현황 보고 자료 부실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 감사하기로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테크노파크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오기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수훈(민주·서구1) 시의원은 이날 "전년도 광주테크노파크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 2023년도 9월 말 기준 직급별 급여는 임원·단장·본부장 합산액이 2억5500만원이었는데, 올해 받은 2023년 기준 직급별 급여는 합산액이 5600만원으로 1억99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전년도와 올해 제출 자료를 비교했을 때 6·7급 급여는 각각 14억원에서 21억원, 8급 6000만원에서 13억원 등 엄청난 차이를 보였고, 공무원 급여 현황은 아예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산업건설위원들은 또 중소벤처기업 매출 현황 역시 2022년 기준 6651억원에서 올해 3909억원으로 대폭 줄어 보고하고, 공사입찰과 수의계약 건수 등도 잘못 적거나 누락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질타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여러 제출 자료를 보면 단순한 오기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사업을 위해 공식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지난해 자료를 합쳐 표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테크노파크에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러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9월 초 기준 2급 직원 1명이 퇴사했는데도, 퇴사자를 포함해 보고하거나 수의 계약 금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공사 목록을 누락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또 광주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실한 답변이 반복됐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그린카진흥원의 주요 성과인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행감 준비를 성실히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공공비축미 4813t 매입

광주시는 5일 2024년산 공공비축미 4813t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정부 매입물량 49만5000t 중 공공비축미 3142t·시장격리 곡 1671t 등 4813t을 배정받았다. 이는 광역시·도 중 인천시 다음으로 많

은 공공 비축 매입량이다.

매입 직후 포대당 4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가 지급금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원활한 매입을 위해 4개 자치구에서 수매 절차

를 진행하고, 13곳의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나눠 보관한다. 보관물량은 내년 1월부터 복지용 쌀로 가공·도정해 사회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남태승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쌀 출하 농가에서는 강대산·새정무 등 광주시 매입품종 외 다른 품종을 출하해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축산 악취 개선에 국비 210억 투입

가축분뇨 적정처리·자원화 확대...에너지화 공모 사업 적극 참여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관련 2025년 국비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2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주효했다.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한 사업은 ▲축산악취개선 사업 ▲악취측정 ICT(정보통신 기술) 기계·장비 사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 ▲가축분뇨 이용축진사업이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 등의 가축분뇨처리 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해 퇴비사,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주·곡성·강진·함평에 4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은 축산악취 발생 지역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효과적 악취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함평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공동처리를 위해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장흥에 8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가스·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담양 전기 생산, 고흥 바이오차 생산·공급에 141억원을 지원한다.

고체연료는 가축분뇨의 수분을 없애 석탄처럼 고체로 만든 연료와 물질임,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으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섭씨 350도 이상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고체 탄화 물질이다.

가축분뇨 이용축진사업은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 13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덴마크의 세계 최대 규모인 SBS 바이오가스 시설을 시찰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및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국외 선진지 견학을 했다.

7월에는 독일 최대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업체인 플란에테(PlanET)를 초청해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시·군, 축협, 축산농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앞장설 여건을 마련했다"며 "특히 환경친화 축산을 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